



# 人物통신

높이고 사무능률 향상을 위해 사내 전산 소트웨어 경진대회를 개최, 우수한 성적을 올린 직원들을 표창했다.

## 개혁의 역사적 의미 강연



◇崔炯佑  
의원(民自)  
은 내달 1  
일 저녁 고  
려대 인촌  
기념관에서  
高大允본대  
학원주최로 열리는 최고위 언론  
과정 특강에 참석, 「개혁의 역사  
적 성격과 의미」라는 제목의 강  
연을 할 예정.

## 中 도문시에 도서관 개관

◇李寅杓  
에스파이아 사회과  
학재단 이사장은 29일 중국 도문  
시에 교포어린이를 위한 인표어

## 씨 공해추방보부창립

지난 3월말 전국에서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기인대회를 가진 뒤 씨는 전국에 10개지부, 1백20개 지회를 결성해 조직기반을 다져왔으며 앞으로 5개지부, 1백50개 지회를 갖춰 나가겠다고 설명했다.

공추본은 앞으로 가정의 오

## 마지막 사업으로…

폐수·기업체 폐수·음식점쓰레기의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, 관계부처에 고발하는 한편 음식물쓰레기를 사료용 비료로 사용하는 방안강구 등 자원재활용에 앞장설 계획이다.

공추본은 또 전국 15개 지부가 완결되면 각 지부마다 1~2명의 유급환경순찰전담요원을 두어 비디오카메라로 오염현장을 촬영, 당국에 고발하고 각종 제보를 받아 이를 현장에 나가 직접 감시하기로 했다.

〈李順女기자〉

린이도서관을 개관했다.

## “변진섭과 결혼계획 있다”



인기 텔런트  
최진실 (24·사  
진위)이 가수  
변진섭 (27)과  
의 결혼계획  
을 처음으로  
밝혔다. 최양  
은 지난 28일  
하오11시 개  
그맨 김형곤  
이 진행하는  
KBS-2 TV  
의 「심야에의  
초대」에 출



연, 『섭섭이(변진섭의 애칭) 오빠  
와 결혼할 계획이 있나』는 질문에  
대해 「있다」고 대답했다. 그러나  
구체적인 결혼일정은 밝히지 않  
았다.

## 동창회

▲서라벌고 7회=4일 하오

## 네번째 방한 LA市의회 의장 존 페라로

존 페라로 美로스 앤젤레스 市  
의회 의장 (69)은 『金泳三 대통령  
은 지난번 LA 방문을 통해 훌륭한  
인상을 남겼다』면서 『개혁  
을 이끌고 있는 金泳三 대통령  
이 어려운 시기에 한국의 지도  
자로서 적임자라는 인상을 받  
았다』고 말했다. 친선방문차 金  
鎮亭 LA 코리아타운 교민회 이  
사장 (60)과 함께 29일 입  
국한 페라로 의장은 金대통령의  
LA 방문 당시 LA 市 사상 처음  
으로 의회에서 「金泳三 대통령  
의 날」을 선포하는데 주도적인 역할  
을 한 인물.

11년째 시의회 의장을 맡으면  
서 親韓派로 알려진 페라로의  
장은 미국내 韓人들에 대해 「내  
지역구에도 한인들이 많지만  
그들은 열심히 일하는 좋은 시

민들이며 사회에 대한 기여도  
도 높다』고 높이 평가했다. 88  
서울올림픽 때를 비롯해 이번이  
4번째 한국방문인 그는 『이번  
에 한국에 와서 경제가 살아움  
직이는 왕성한 모습을 보니 한  
국인이 야망에 찬 민족이라는  
인상을 받았다』고 말했다.

## 의회서 「金泳三 대통령 21세기 아시아와의

한국의 개혁에 대해 『국가발  
전을 위해서는 민주적인 절차  
가 필요하다. 95년에는 지방자  
치단체장 직접선거도 실시될  
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  
민들이 지도자를 선출하고 교  
체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』  
고 말했다.

## 오늘 출범 「생명문화

美 암관리센터 연구원

지난 82년 전자기파에 노출  
된 신장과 심장의 변이를 연구,  
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은 미국  
미시의료재단 암관리센터의 연  
구원 李揆學 박사 (52)가 생명문  
화운동의 가치를 들었다.

그는 「암발생의 위험을 피하  
기 위해서는 침실에는 텔레비전  
이나 컴퓨터 등을 두지 말아야  
한다」는가 「인체에 유해한 전  
자기파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전  
제품이 내는 전자기파를 인체  
보다 먼저 흡수하는 물기에 소  
금물을 담아 두는 것이 좋다」는  
이색 주장을 펴왔다.

문명화적으로 볼 때 21세기에는  
건강지상주의로 살아온 민  
족이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  
이라고 전망하는 그는 『21세기 한



## 유니세프 법률가 클럽 창립총회 개최

유니세프 (유엔아동기금) 법  
률가 클럽 창립총회가 29일 하  
오 6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 
玄勝鍾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 
회장, 에드워드 스페샤 駐韓유  
니세프대표, 클럽회원등 30여  
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
(사진).

앞으로 이 클럽은 89년 유엔  
총회에서 채택돼 세계 1백50  
여개국이 비준을 마친 「아동

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 
(CRC)」과 관련, 국내에서 이  
협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 
협약의 해석 및 국내법과의 관  
계 등에 대해 자문을 하게 된다.

이날 총회에서 초대회장에  
는 李相赫 변호사가 선출됐고  
부회장에는 宋相現 서울대법  
대 교수, 宋基方 변호사가 각각  
선임됐다. 〈李曉禎 기자〉

## 일·사람

인구정책 국제세미나

한국보건사회연구원 (원장 李  
雨)은 亞大경제사회이사회